

『수호전』 양산박의 생성과 소멸의 공간적 의미*

—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특성을 중심으로

박명진**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양산박의 생성 — ‘이의제기의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 1)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이상적 공간
 - 2) ‘이의제기’의 공간
3. 양산박의 소멸 — ‘한시적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 1) 경계의 공간
 - 2) 교섭과 소멸의 공간
4. 나오는 말

【초록】

『수호전』의 양산박은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공간으로서, 현실세계에 존재하지만 다른 현실공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인 대항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의제기의 공간’으로 생성되었으며 ‘한시적 공간’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산박의 생성과 소멸은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수호전』에 함축된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어떠한 ‘공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공간’이 현실세계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통해 그 장소가 지니는 함의를 분석해보는 것은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는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수호전』, 양산박, 헤테로토피아, 공간(장소), 유토피아

* 이 연구는 2019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piao406@ynu.ac.kr)

1. 들어가는 말

『수호전(水滸傳)』은 명대 사대기서(四大奇書)에 속하는 중국고전소설 대작으로, 노신(魯迅)에 의해 ‘영웅전기(英雄傳奇)’ 소설로 분류되었다. 노신은 이 작품이 단순히 꾸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임을 강조하면서, 실제 역사 속 인물 ‘송강(宋江)’과 민간에 전해진 송강이 이끈 ‘기의(起義)’를 소재로 하여 서술된 작품임을 밝혔다. 송말원초 시기 사회가 혼란해지자 관핍민반(官逼民反)의 상황들이 실제로 있었는데, 도적이 된 무리들은 관병을 이기기도 하고 그중 능력이 뛰어난 자들은 조정의 초안(招安)을 받아들이고 반란군들을 토벌하여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또 명나라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공신들의 득세를 두려워해 그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고, 백성들은 공신들의 비극을 동정했다. 이러한 내용은 송강이 조정의 초안을 받아들인 후 공적을 이루지만 결국 독주를 마시고 최후를 맞는 내용으로 삽입되었다.¹⁾ 역사 속 ‘송강 기의’를 소재로 하여 이루어진 『수호전』은 오랜 시간 동안 집체창작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새롭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담게 되었다. 이 작품은 송원 이래 광범위하게 전해지던 민간고사와 민간예능 및 회곡 등의 기초 위에서 위대한 작가의 재창작을 거쳐 원말명초에 장편백화소설로 탄생했다.

나관중(羅貫中)과 시내암(施耐庵)에 의해 완성된 『수호전』은 창작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보수를 겪으면서 주제 면에서 매우 복잡한 사상을 드러내고 있어, 그 주제의식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²⁾ 지금까지 이 작품의 성격에 대해 농민봉기를 묘사한 작품이라는 분석을 비롯해 도적질을 가르치는 ‘회도(誨盜)’의 작품 혹은 ‘충의(忠義)’를 가르치는 작품이라는 평가와 ‘충신과 간신의 대립’ 혹은 농민봉기와 충간 대립을 함께 다루었다는 전통적인 주장 외에도, 시민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합리로 인한 ‘핍상양산(逼上梁山: 사회제도권의 핍박으로 인해 양산박으로 가다)’을 다루었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 왔다.³⁾ 또한 최근에도 『수호전』 속 ‘충의’의 의미 분석을 바탕으로 송원 시기 시민계층의 증대와 민간의 도덕과 가치관 변화에 따른 ‘충’과 ‘의’의 충돌을 중심으로 작품의 성격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⁴⁾ 『수호전』의

1) 魯迅 著, 『中國小說的歷史的變遷』, 『魯迅全集』(第9卷), 人民文學出版社, 1996, pp.324-325.

2) 陳忠凡, 「試論『水滸傳』的著者及其創作時代」, 沈伯俊 編, 『水滸研究論文集』, 中華書局, 1994, p.15. 나관중과 시내암은 집체창작의 과정을 거친 『수호전』에 있어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한 작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3) 沈伯俊 編, 『水滸研究論文集』「前言」, 中華書局, 1994, pp.11-13. 郭英德, 「論『水滸傳』的思想意義」, 竺青 選編, 『名家解讀水滸傳』, 山東人民出版社, 1998, pp.150-151. 여기서는 『수호전』에 전통적인 여러 관점에 대한 언급과 함께 양산영웅들의 봉기(梁山泊起義)가 작품에서 묘사하고 있는 중심으로, 이것이 작품의 본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 작품의 핵심적 성격을 함축하고 있는 ‘양산박 기의’에 대해 양산박이라는 공간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재적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판본 중에서 용여당본(容與堂本) 100회본이 가장 완전한 이른 시기의 ‘수호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⁵⁾ ‘수호이야기’에는 108 양산영웅의 이상세계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작품 속 이상세계는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되었고, 이 공간을 중심으로 담론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이 담론의 형성 과정을 통해 『수호전』이 그려내는 양산영웅의 이상세계가 지니고 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양산박’은 바로 작품 전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속 특정 공간(장소)은 작품의 주제와 관련된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공간을 사회적 관계들이 교차하는 장소라고 보았으며, “모든 형태의 공동체 생활에서 근본적이며, 권력형성에서 근본적이다.”라고 하였다.⁶⁾ ‘공간’은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이것을 통해 사회적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하나의 시각으로 삼아 작품에 접근함으로써 작품의 주제의식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수호전』에 묘사된 양산박 수호寨(水滸寨)는 작품이 묘사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특권적인 장소—‘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 전체에 대한 상징성을 지닌 양산박이라는 장소의 함축적 의미를 통해, 작품 속 108 영웅인물들이 존재하고 사라져간 사회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호전』의 공간인 양산박은 미셸 푸코가 언급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의 속성을 닮아있다.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양산박은 담론의 형성을 통해 권력의 질서가 규정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수호전』은 주류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자신들의 몸을 의지할 이상적 장소인 양산박행을 선택한 인물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이상을 구체화시키면서 존재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해 노력하다가 다시 주류사회로 돌아갔으나 존재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비극을 맞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양산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세계인 ‘유토피아(Utopia)’보다는

4) 王昕, 「论『水浒传』的“忠义”冲突及其近代意义」, 『中国人民大学学报』, 2019年第2期, p.172.

5) 范宁, 「『水浒传』版本源流考」, 沈伯俊 编, 『水浒研究论文集』, 中华书局, 1994, p.251. 본 논문은 용여당본을 저본으로 한 표점본을 텍스트로 삼았다. 施耐庵·罗贯中 著, 『水浒传』, 人民文学出版社, 1992, p.2.

6)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7, p.87. 레비나우(P.Rabinow)와 라이트(G. Wright)는 “공간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특권적인 장소이다.”라고 하였다.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120.

현실세계에 존재하나 다른 공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이상적 공간인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와 이상적 공간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서로 대립되지 않는 개념이며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속성을 들여다보면, 유토피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세계로 현실에 없는 공간이며,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유토피아이다.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는 ‘다른(heteros)’과 ‘장소(topos)’의 합성어다.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나, 현실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공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곳, 즉 반공간(反空間; contre-espace)으로서의 유토피아이다.⁸⁾

『수호전』의 본질을 담아낸 그릇인 ‘양산박’은 바로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고 찾을 수도 없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유토피아와는 달리, 현실세계에 존재하며 찾을 수 있고 결국은 변화·소멸될 수 있는 현실의 사회공간 속에서 발견되는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이다. 작품 속에서 묘사되는 양산박은 문명과 사회제도 속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기존 사회의 질서와 규칙과는 다른 이상사회의 모습을 지닌 다른 장소인 것이다.

따라서 『수호전』에 묘사된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 작품의 본질을 파악하는 하나의 시각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을 헤테로토폴로지(heterotopologies)라고 불렀다.⁹⁾ 본 논문에서는 헤테로토폴로지의 원리에 근거하여 『수호전』의 ‘공간’인 양산박의 생성과 소멸에

7) 헤테로토피아가 지리학·도시공학·건축 등에 대한 공간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미셸 푸코의 미완성된 애매성을 지닌 이론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필자는 헤테로토피아 연구의 준거가 되고 있는 「다른 공간들」의 역사적 기원이 ‘유토피아와 문학’ 시리즈에서 행한 강연이라는 점을 통해 헤테로토피아가 문학비평의 작업에서 형성되었음을 밝힘으로써, 이것이 문화연구·미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철학적 개념을 지닌 이론임을 강조한다. 또한 푸코의 『말과 사물』을 탄생시켰던 보르헤스의 소설이 헤테로토피아라고 말한 것에서, 필자는 푸코가 헤테로토피아를 처음 사용했을 때 그것은 ‘문학적 공간’을 지시하기 위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박기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 — 문학적 기원에 기초한 미학적 해석」, 『미학』 제83권 1호, 2017, pp.111-112.

8)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는 지도 위에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소를 가지는 유토피아로 모든 사회에 있다고 보았다. 다만 그것은 서로 구별되는 모든 장소와는 절대적으로 다르며 서로 맞서는 장소이며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반공간(contre-espace)이라 설명한다. 또한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사회에 배치되어 있지만 모든 장소의 배치와는 절대적으로 다르게 반(反)배치된 장소이자 실제로 현실화된 유토피아인 장소이다.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p.12-13.

9) 헤테로토폴로지(heterotopologies: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를 밝히는 과학)에 의해 밝혀진 헤테로토피아의 6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헤테로토피아를 구성하지 않는 사회는 없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헤테로토피아는 변한다; 헤테로토피아는 양립 불가능한 여러 공간을 한 장소에 둘 수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시간의 독특한 분할, 즉 영원성 혹은 한시성 등과 연결된다; 헤테로토피아는 주변 환경과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갖는다; 헤테로토피아는 나머지 공간에 대해 어떤 기능을 가지며, 환상적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p.49-57.

함축된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양산박으로 상징되는 ‘수호이야기’의 주제의식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양산박의 공간적 특징을 분석해 보면, 이것은 헤테로토피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양산박은 현실사회와 양립 불가능한 장소를 정상성에 위배되도록 배치한 이의제기의 공간으로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양산박은 본질적인 불안과 소외를 지닌 축제의 한시적 공간으로 존재하다가 현실사회와의 교섭을 시도한 후 결국 소멸되었다.

2. 양산박의 생성 — ‘이의제기의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1) 현실사회에 존재하는 이상적 공간

『수호전』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던 다양한 계층의 인물들이 어두운 사회현실과 갈등을 빚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양산박에 모이게 되고, 이상적인 사회질서의 실현을 꿈꾸며 관부와 대립하다가, 조정의 초안을 받아들여 기존 질서 속으로 편입하였다가 결국은 비극을 맞게 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양산박 수호채는 기존의 정치체제와 법제도에 의해 핍박받고 위협받은 108명의 영웅인물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변혁의 이상을 실현할 터전으로 삼은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양산박은 유토피아적 공간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양산박은 “비록 몇 리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수로뿐이고 육로가 없어 배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장소로 설정되어 있다.¹⁰⁾ 이곳은 석갈촌(石碣村)에서 몇 걸음이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이지만, 산채가 아주 강성해져 군관이나 포도관들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곳이 되었다.¹¹⁾ 양산박은 둘레가 800여 리에 달하는데, 매우 위험천만한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산은 거센 물결 속에 있고, 그 물결은 저 멀리 하늘가에 닿아있네. 갈대는 일만 군대의 창검을 세워놓은 듯하고, 기괴한 나무들은 겹겹으로 늘어선 검극 같구나. 해자 앞 방어막은 모두 다 해골을 줄 세워둔 것이었고, 산채의 그릇들은 모두 해골로 만든 것이라. 남은 사람 가족을 벗겨 북을 켜고 머리카락은 잘라내어 밧줄을 만들었네.

10)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145. “此间要去梁山泊, 虽只数里, 却是水路, 全无旱路.” 본 논문에서 작품에 대한 번역은 번역본 『수호지』(시내암 저,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조 역, 울재, 2015)를 참고하였으나, 대부분 한국어가 어색하고 일부 번역 오류도 있어 윤색하거나 수정하였다.

11)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233. “石碣村那里, 一步步近去, 便是梁山泊. 如今山寨里好生兴旺. 官军捕盗, 不敢正眼儿看他.”

관군 막아낸 것은 여러 물길이 수없이 넘나드는 세찬 물결이고, 도적들 막아낸 것은 깎아진 비탈로 뒤덮인 숲이라. 자갈돌이 겹겹이 쌓여 산을 이루고, 서슬 푸른 대창은 쏟아지는 장대비 같도다. 배들이 계속 다니며 한 바퀴 돌고는 갈대숲에 매복해 있고, 깊은 물길이 곳곳에 숨어있으며, 게다가 모든 성벽 아래에는 초목들이 뻗뻗하네. 단금 정 위엔 음산한 기운 드리우고, 취의청 앞엔 살기가 느껴지네.¹²⁾

지리적 여건으로 보는 양산박의 모습은 암초와 물밑 바위에 둘러싸여 있는 바위섬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 섬’¹³⁾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작품은 이처럼 험난한 지세를 이용해 침범할 수 없이 견고하여 사회와 단절된 양산박을 설정하고 현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장소는 일반적인 유토피아와는 분명 차이가 있다. 양산박은 현실의 결핍을 메우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유토피아적 의지를 보여주는 공간이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는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유토피아인 헤테로토피아로 묘사되고 있다. 작품에서 양산박은 지리적으로 북송의 수도인 동경(東京: 지금의 카이펑)에서 그리 멀리 않은 곳에 위치한 ‘산둥 제주(濟州) 관할 내 한 수향의 지명’¹⁴⁾으로, 작품 속 현실세계에 실제 존재하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이곳은 ‘세외도원(世外桃源)’처럼 세상을 초탈한 찾을 수 없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도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물속(水湖)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완자성(宛子城)과 요아와(蓼兒洼)라는 곳이라고 작품에서도 몇 차례 언급한다. 이곳은 사회에서 큰 죄를 짓고 화를 피해 도망 온 자들을 품어주는 곳이다.¹⁵⁾ 이곳은 꿈꾸는 안정적인 이상사회라기 보다는 전운이 감도는 위태로운 피난처 혹은 안식처의 모습이다.

양산박은 헤테로토피아가 유토피아와 구분되는 근본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것은

12)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147. “山排巨浪, 水接遥天. 乱芦攒万万队刀枪, 怪树列千千层剑戟. 濠边鹿角, 俱将骸骨攒成; 寨内碗瓢, 尽使骷髅做就. 剥下人皮蒙战鼓, 截来头发做缰绳. 阻挡官军, 有无限断头港陌; 遮拦盗贼, 是许多绝径林峦. 鹅卵石叠叠如山, 苦竹枪森森如雨. 战船来往, 一周回埋伏有芦花; 深港停藏, 四壁下窝盘多草木. 断金亭上愁云起, 聚义厅前杀气生.”

13) 토머스 모어(Thomas More)는 1516년에 쓴 『유토피아』(원제: 공화국의 최선의 상태와 새로운 섬 유토피아에 대하여(De optimo reipublicae statu deque nova insula Utopia))에서 ‘유토피아 섬’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곳은 전체가 약 500마일 정도의 초승달 모양의 섬으로, 유토피아인들이 항해하기에는 아주 좋은 곳이나 외부인에게는 물밑에 숨어있는 바위들 때문에 위험하고, ‘유토피아인들만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외지인들은 이 나라의 수로 안내인 없이 들어오기가 힘든’ 곳이고, ‘소수의 수비병만으로 적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는’ 천혜의 요새라고 했다. 토마스 모어 지음, 주경철 옮김, 『유토피아』, 을유문화사, 2017, pp.62-64. 그러나, 유토피아 섬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며, 현실과 분리된 땅이며,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구상을 펼치는 곳이다. 주경철 지음, 『유토피아, 농담과 역설의 이상 사회』, 사계절출판사, 2015, p.103.

14)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143. “是山东济州管下一个水乡, 地名梁山泊……”

15)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143. “多有做下迷天大罪的人, 都投奔那里躲灾避难, 他都收留在彼.”

현실세계에서의 공간 배치의 정상성을 벗어난 배치를 형성하고 있으며, 현실세계와는 이질적인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이다. 이곳의 스산한 분위기는 양산박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공간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수호전』을 유토피아 사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양산박이 본질적으로 유토피아와는 다른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을 지니고 때문이다.

2) ‘이의제기’의 공간

『수호전』의 양산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죄를 저지르고 안전한 삶의 터전을 잃은 영웅인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피한 장소이다. 자신이 속한 현실사회에서 생존의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면 불안과 소외를 경험하게 되고, 현실에서의 결핍을 메우고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장소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장소는 현실사회 속 그 러나 고립된 곳에 위치해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유토피아와는 다른 장소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헤테로토피아는 사회에 의해 고안되고 그 안에 제도화되어 있는 공간이다. 다만, 그 존재 자체로써 나머지 정상 공간들을 반박하고 이의제기하는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¹⁶⁾ 이곳은 신화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이의제기를 수행하는 공간이며,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공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반공간이며, 이것은 헤테로토피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의 장소들이 지니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우고 중화시키고 혹은 정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장소이다.¹⁷⁾

『수호전』의 양산영웅은 사회현실의 냉혹함과 불합리함에 내몰리어 현실사회와는 절대적으로 다른 일종의 ‘일탈의 헤테로토피아’¹⁸⁾ 즉, 기존사회의 규범이나 질서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장소가 필요했다. 양산박은 이러한 일탈의 공간에서 점차 ‘이의제기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이처럼 『수호전』에서는 양산영웅의 양산박으로의 ‘상산(上山)’ 행위를 통해 헤테로토피아가 생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산박행을 선택한 영웅인물은 대부분 울곧은 품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대항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대항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뽕상양산’의

16)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다른 공간에 대한 이의제기라고 했다. 또 두 가지 방식의 이의제기 즉, 현실을 환상이라 고발하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이의제기와 무질서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 대해 완벽하게 정돈된 또 다른 현실 공간을 만드는 방식의 이의제기를 제시하였다.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24.

17)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13.

18) 일탈의 헤테로토피아는 사회적인 규범의 요구나 평균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개인들이 들어가는 곳을 가리킨다.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50.

경험치를 지니고 있다. 『수호전』의 주요인물인 임충(林冲)의 양산박행도 이러한 의미를 보여준다.

의리 하면 임충이요, 성실하고 충직한 성품이거늘! 이제 강호에 이름을 드리우고, 슬프게도 영웅들과 함께 모이네. 신세 안타깝게도 갈 곳을 잃으니, 공명은 한낱 허사였구나. 훗날 뜻을 이룬다면, 태산 동편에서 위세 떨치리.¹⁹⁾

임충은 『수호전』에서 양산박행으로의 과정이 묘사된 첫 번째 인물로 ‘관림민반’의 대표성을 지닌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고아내에게 희롱을 당한 상황에 고태위의 모함을 받아 창주로 정배를 가던 중, 군용 마초장 화재사건으로 인해 부득이 세 사람을 살해하고 양산으로 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양산박행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부패한 사회현실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를 보여준다.

『수호전』의 전반부는 양지(楊志)·무송(武松)·송강의 이야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양산행을 택한 양산영웅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서술하고 있다. 『수호전』속 양산영웅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주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에는 귀족 혹은 대부호인 시진(柴進)과 노준의(盧俊義), 교두인 임충, 상장군인 양지와 노지심(魯智深), 군대 장관인 화영(花榮)과 진명(秦明), 하급관리인 무송과 이규(李逵), 일반 평민 완소오(阮小五)와 연순(燕順) 등 다양한 계층에 속하는 양산영웅이 등장한다. 이들은 사회의 혼란과 정치의 부패가 그들의 도덕관·가치관과 충돌을 일으켜 법을 위반하게 되고, 사회현실 속에서 생존의 문제를 위협받게 되자 자신들을 보호할 울타리를 찾아 양산박행을 선택한 것이다.

양산영웅의 회합에 의해 견고해진 양산박은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다. 헤테로토피아의 본질은 현실의 모든 공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현실과는 반대되는 완벽한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양산박의 영웅인물은 이곳을 자신들의 이의제기 공간으로 설정하고, 현실에서의 결핍을 메우고 이상을 실현하려는 유토피아적 의지를 통해 양산박에서 자신들의 이상향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작품은 양산박이 ‘체천행도(替天行道: 하늘을 대신하여 천도를 행하다)’와 ‘장의소재(仗義疏財: 의를 중시하고 재물을 아끼지 않다)’를 위해 양산영웅이 모인 것이라는 명분을 부여한다. 송강(宋江)이 양산박을 이끌기 이전부터 조개(晁蓋)의 양산박에서 이미 이런 이상향의 원시적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19)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145. “仗义是林冲, 为人最朴忠. 江湖驰闻望, 慷慨聚英雄. 身世悲浮梗, 功名类转蓬. 他年若得志, 威镇泰山东!”

취의청에는 서른 여섯 천상 영웅이 오게 되고, 단금정에는 일흔 둘 지상 호걸이 오게 되었네. 하늘을 대신하여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아끼지 않는 영웅들이 오게 된 것이다.²⁰⁾

양산박은 36명의 천상 영웅과 72명의 지상 호걸 등 양산영웅이 ‘체천행도’와 ‘장의소재’를 구현할 이상세계의 공간으로 마련된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조개는) 갈취한 생일선물 꾸러미와 자신의 장원에서 챙겨온 금은보석과 포목비단들을 취의청 앞에 꺼내놓고 바로 작은 두목들과 여러 졸개들에게 상으로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다. … 이때부터 양산박의 열한 명 두령들의 친분은 팔다리와 같았고, 의기는 골육과 같았다.²¹⁾

‘체천행도’는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한 사회현실에 대한 이의제기의 한 형태이며, 완벽한 사회에 대한 추구를 드러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장의소재’는 어떤 대항공간에서 구성한 완벽한 사회의 이상적인 도덕적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양산박에서 조개는 재정적인 부가 축적되면, 이에 대한 분배 방식으로 절반은 산채의 재산으로 창고에 두고, 남은 절반 중에서 절반은 두령들에게, 절반은 산 아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을 택하였다. ‘체천행도’와 ‘장의소재’는 현실사회에 반대되는 지향점을 추구하는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공간인 양산박이 보여주는 이의제기의 대표적인 표현이다.

양산영웅의 이러한 ‘이의제기’의 형태는, 후대에 문학에서 소설적 계승보다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저항정신으로 계승되기도 하였다. 이자성의 농민혁명, 태평천국운동, 의화단 사건, 천지회 등과 같은 수많은 민중 반란에서 양산박의 정신을 계승하였다.²²⁾

3. 양산박의 소멸 — ‘한시적 공간’으로서의 헤테로토피아

20)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p.251-252. “有分教: 聚义厅上, 列三十六员天上星辰; 断金亭前, 摆七十二位世间豪杰. 正是: 替天行道者将至, 仗义疏财汉便来.”

21)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255. “便教取出打劫得的生辰纲金珠宝贝, 并自家庄上过活的金银财帛, 就当厅赏赐众小头目并众多小喽啰. …… 自此梁山泊十一位头领聚义, 真乃是交情浑似股肱, 义气如同骨肉.”

22) 진정염·임기담 저, 이성규 역,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2011, pp.329-330.

1) 경계의 공간

헤테로토피아는 현실세계와 반대되는 지향점을 추구하며 생겨난 또 다른 공간으로, 새로운 이상세계에 대한 추구가 있는 이의제기의 공간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모든 다른 공간을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장소는 일시적으로 환상의 공간, 축제의 공간이 된다. 이점은 헤테로토피아가 시간의 분할과 관련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²³⁾ 환상의 공간 혹은 축제의 공간은 가볍고 일시적이며 불안정한 시간과 연계된 헤테로토피아로 ‘한시적인 헤테로토피아’를 형성한다. 『수호전』의 양산박에는 영웅인물들이 모여들었고, 특히 송강이 합류하면서 그 기세가 드높아졌다. 이때의 양산박은 오용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축제의 공간과 같았다.

요즈음 산채의 기세가 아주 높아져 사방의 호걸들이 구름처럼 모여드네요. … 지금은 산채가 변창해서 이전과는 다르니, 주점 세 개를 더 차려서, … 산 앞에는 큰 관문 세 개를 설치하고 … 도종왕은 충감이 되어 산채와 연결되는 물길을 파고 수로를 고쳐서 물길을 열며, 완자성의 성벽을 수리하고 산 앞 큰길을 닦도록 해야겠소. … 송청은 연회의 일을 도맡아 하도록 해야겠소.²⁴⁾

양산박에서는 이렇게 산채를 정비하고 연이어 사흘이나 주연을 벌였다. 양산박은 송강이 추가장을 공격하여 승리를 거둔 이후 또 다시 정비를 했고 기세가 더욱 높아졌다. 관군과의 전투에서도 백전백승을 하며, ‘군마가 갖추어져 관군이 쳐들어와도 근심이 없으며’ 인마·식량·재물이 모두 넘쳐나는 산채가 되었다.

양산박은 현실세계 속에 또 다른 하나의 현실공간으로 존재하며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자유로운 하나의 완벽한 사회였다. 그러나 동시에 이곳은 자기 폐쇄적인 사회를 구성하였다. 이 장소는 ‘반대’에 의한 이의제기의 공간으로서 생성되었기 때문에, 헤테로토피아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고립과 소외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불안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헤테로토피아는 이상세계에 대한 추구이지만, 근본적으로 질서에 대한 전복·균열·해체를 가하는 기능적 차원과 관련되

23) 헤테로토피아는 대개 시간의 분할과 연결된다. 시간의 분할과 관련된 헤테로토피아에는 시간이 끊임없이 쌓이는 시간의 축적과 관련된 영원성의 헤테로토피아와 축제의 양식으로 일시적이며 불안정하게 시간과 연계된 한시적인 헤테로토피아가 있다.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p.53-55.

24)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p.607-608. “近来山寨十分兴旺, 感得四方豪杰望风而来, …… 目今山寨事业大了, 非同旧日, 可再设三处酒馆, …… 山前设置三座大关, …… 又令陶宗旺把总监工, 掘港汊, 修水路, 开河道, 整理苑子城垣, 筑彼山前大路. …… 令宋清专管筵宴.”

어 있다. 이러한 헤테로토피아의 불안은 헤테로토피아를 경계의 위치에 자리하게 한다. 『수호전』은 문학적 상상력을 펼쳐서 양산박을 이상향을 실현하는 공상의 장소로 만들지 않았고,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실재하는 장소로 설정하면서, 동시에 ‘경계’의 위치에 배치하였다. 양산박은 ‘수호(水滸)’라는 물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것은 양산박이 이상세계로 온전히 진입하지 못하고 현실세계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산박은 하나의 헤테로토피아로, 현실사회에서는 배치되어서는 안 되는 배치 불가능한 장소를 정상성에서 벗어나 배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장소는 현실적이면서도 비현실적이고 존재하면서도 부재하는 온전하지 못한 이상세계였고, ‘휴식처’ 같은 곳이지만 영원할 수 없는 한시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반공간’은 그 운명이 극복할 수 없는 현실사회의 흐름에 내맡겨져 있으며, 역사가 흐르면서 이전에 구축했던 헤테로토피아를 완전히 흡수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²⁵⁾

『수호전』의 양산박은 안전과 보호를 목적으로 선택된 장소였으나, 근본적인 불안과 소외로 인해 경계와 교섭의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 왜곡되었다. 작품 속에서 양산박은 줄곧 경계의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양산영웅은 생존의 장소를 온전히 점유하고 있지 못하고, 안전한 장소의 상실로 또 다른 공간인 장소를 만들었으나, 이 장소에 대한 왜곡과 상실에 대한 불안감을 늘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이 장소에 대해 온전한 사회적 명분을 부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산영웅은 본의 아니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양산박행을 선택하여 산채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임충이 찾은 양산박은 몸을 의지할 곳이 없어(無安身處) 잠시 머무르며 살길을 찾기 위해 선택한 곳으로, 임충은 이곳을 유토피아라고 보지 않았고 경계에 있는 잠시 머무르는 피난처인 보정(compensation)의 공간으로 보았다.²⁶⁾ 이런 점에서 양산박은 이상세계로 다시 돌아가려는 재귀의 장소로서의 헤테로토피아로 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양산박은 경계의 위치에 놓여 교섭의 여지를 지니게 된 것이다.

『수호전』에서 송강이 양산박에 합류하면서 이곳은 성격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곳은 ‘천도(天道)를 행하고 천병(天兵)을 움직이는’ 곳이 되었다. 양산영웅이 ‘체천행도’의 권한을 부여받는 방식은 바로 현녀(玄女)에게서 천서(天書) 3권을 받는 것이었다. 현녀는 송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주 송강에게 천서 3권을 내리노라. 그대는 하늘을 대신하여 천도를 행하라. 성주

25)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17.

26) 헤테로토피아는 나머지 공간에 대해 어떤 기능을 가진다. 우리 공간이 무질서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라고 보일 만큼 완벽하고 주도면밀하고 정돈된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이것이 보정(compensation)의 헤테로토피아이다.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p.56-57.

로서 충성을 다하고 의를 중시하며 신하로서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잘못을 버리고 바른 길로 들어서고, 공적을 다 이루고 결실을 맺으면 조정대신의 몸이 되리라.²⁷⁾

송강이 최고 두령이 되면서 작품은 송강의 ‘효’와 ‘충’을 강조한다. 이것은 이전의 ‘의’를 대체하여 양산박이 추구하는 가치관이고 도덕관이 되었다. ‘충성을 다하고 의를 중시하며 신하로서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송강이 해야 할 역할의 핵심이 되었다. 양산박은 이러한 역할과 ‘체천행도’·‘장의소재’의 경계에 있게 된 것이다.

『수호전』에서의 ‘충의’의 의미에 대해, 작품 속에서 이미 ‘충’과 ‘의’로 분화되어 서로 다른 모순된 두 종류의 도덕적 가치로 반영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작품에 반영된 ‘의’는 민간의 새로운 도덕적 가치관으로, 송대 이후 도시의 확대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시민계층의 자율적인 도덕적 준칙이면서 생활방식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사회질서의 안정성을 추구하던 정치논리인 ‘충’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²⁸⁾ 이 작품에서 ‘충’과 ‘의’의 모순과 충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양산박의 해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양산박의 해체 과정은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위태로운 헤테로토피아는 안전한 공간 점유를 위한 교섭을 시도한다. 이것은 헤테로토피아를 열림과 닫힘의 체계가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²⁹⁾ 그러므로 경계의 공간인 양산박은 열림과 닫힘의 기능을 통해 조정과의 교섭을 끊임없이 시도한다. 교섭의 매개는 양산박의 중심인물 송강이며, 송강은 매개체로 ‘의’·‘충’·‘효’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양산박과 현실세계 두 공간의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어 양쪽을 잇고 있는 매개이다. 양산박이 추구하는 가치 ‘장의소재’의 ‘의’와 현실세계가 대표하는 가치 ‘충’과 ‘효’를 모두 지닌 인물이다. 작품에서 송강의 ‘의’는 양산영웅에게 신분을 뛰어넘어 존경과 대접을 받는 절대적인 덕목으로 사용되었다. 송강은 ‘장의소재’의 화신으로 급시우(及時雨: 제때에 내리는 비)라는 명성을 얻었다. 도적이 된 연순의 입을 통해서도 송강의 인물됨을 들을 수 있다. “소인 강호녹림에 10년 넘게 살아왔지만, 형님이 의를 중시하고 재물을 아끼지 않으며 곤란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³⁰⁾ 작품

27)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582. “宋星主, 传汝三卷天书, 汝可替天行道, 为主全忠仗义, 为臣辅国安民. 去邪归正, 他日功成果满, 作为上卿.”

28) 王昕, 위의 논문, pp.166-168.

29)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가 언제나 그것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특정한 의식을 통한다면 그곳으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드는 열림과 닫힘의 체계를 전제한다고 말한다.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55.

30)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436. “小弟在江湖上绿林丛中走了十数年, 也只久闻得贤兄仗义疏

은 송강이 “집안에서 효를 다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장의소재를 실천하여, 사람들은 모두 그를 ‘효의흑삼랑’으로 불렀다.”³¹⁾라는 등의 서술을 통해 그의 ‘의’·‘충’·‘효’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양산박 한 가운데 위치한 수호채의 본당인 취의당(聚義堂)은 교섭을 위해 충의당(忠義堂)으로 개명한다. 그들의 가치관이 ‘의’에서 ‘충’으로 옮겨간 것이다. 이러한 송강에 대한 묘사를 통해, 작품에서 양산박은 경계의 자리에 위치하면서 송강을 매개로 현실세계와 교섭을 시도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양산박은 본질적으로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이고 배치가 불가능한 공간으로, 기존 사회의 정치질서나 도덕질서와 양립하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은 줄곧 경계의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 경계의 공간은 곧 교섭의 공간이 된다.

2) 교섭과 소멸의 공간

『수호전』에서 양산박의 교섭은 바로 합법적인 정권이 비합법적인 조직에 대해 항복과 귀순을 끌어내는 ‘초안’이라는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헤테로토피아는 언제나 그것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열림과 주변 환경과 교섭하는 닫힘의 체계를 갖는다.³²⁾ 이러한 교섭은 특별한 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수호전』에서 양산박과 현실세계(송나라 조정)와 교섭을 시도하는 의식은 바로 초안의 방식인 것이다.

작품 서두에는 송나라의 개국 후 태조부터 인종(仁宗)까지 90여 년간의 태평성세를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태평성세는 “위로는 하늘의 뜻에 부합되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에 부합되며, 가운데는 인심에 부합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때는 천하가 태평하니, 오곡이 풍성하고 만백성이 즐거이 일하고, 길에 떨어진 물건 줍지 않고 밤에도 집집마다 문을 닫지 않았다.”³³⁾ 여기에서 묘사되는 것은 유가적 유토피아인 대동사회(大同社會)의 이상향이다. 대동사회는 평등하고 도덕적이며 평화로운 이상사회이며, 구성원이 화목하고 신뢰하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 도적과 전쟁도 없이 평화로운 사회를 가리킨다. 이것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수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동’은 원시공동체사회에 대한 동경으로 보이며, 대동사회의 궁극적인 모델은 요순(堯舜) 등 유교적 선왕이 다스리던 태평성세이다.

財、濟困扶危的大名.”

31) 施耐庵·羅貫中 著, 위의 책, p.229. (宋江)“又且于家大孝, 为人仗义疏财, 人皆称他做孝义黑三郎.”

32)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위의 책, p.22.

33) 施耐庵·羅貫中 著, 위의 책, pp.2-3. “正应上合天心, 下合地理, 中合人和.” “那时天下太平, 五谷丰登, 万民乐业, 路不拾遗, 户不夜闭.”

작품이 현실세계의 송나라가 개국 이후 줄곧 태평성세를 누렸던 이상사회였음을 제시한 것은, 양산영웅이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와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교섭과 재귀의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작품의 서두에서 이러한 생성과 소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영웅호걸이 모인 것은 송나라의 기운이 기울었기 때문이며, 나라의 기운은 다시 돌아오고 영웅호걸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모두 음양의 조화라고 말하고 있다.

만물의 풍요로움 속에 백성들 살고, 인종황제의 태평성세에 그 즐거움 끝이 없네.

...

치세와 난세 그리고 흥망의 의미를 살펴보니, 모두 다 음양의 조화라네.³⁴⁾

『수호전』 양산박 영웅들 사이에는 자신들이 속해있던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존재하고 있었다. 양산박을 헤테로토피아로 만드는 또 한 가지의 원리는 조정으로 대표되는 현실세계와의 열림과 닫힘에 의한 교섭과 재귀의 특성이다. 이것은 헤테로토피아와 유토피아와를 분명하게 구별하게 하는 공간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양산박은 결국 초안에 의해 철저히 해체되고 소멸된다. 양산박은 여기에서 시간적 축적이 이루어지는 영원성을 얻지 못하고 축제 혹은 휴양과 같은 ‘한시적인 헤테로토피아’가 된다. 송강을 매개로 하여 얻고자 했던 목적은 송강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정이 성은을 내려 하늘처럼 큰 죄를 사해주고, 무리들 힘을 다하고 몸을 바쳐 나라에 충성으로 보답하여 죽어도 여한이 없네.³⁵⁾

송강의 이러한 목표와 가치관은 결국 양산호걸들의 비참한 결말을 가져온다. 『수호전』에서는 ‘상산’ 행위와는 대조되는 ‘하산(下山)’ 행위를 통해 양산영웅은 현실세계로 재귀한다. 그러나 이들 양산영웅은 조정에 의해 요(遼)나라를 정벌하고 남방 ‘3대 도적(三路之寇)’ 왕경(王慶)·전호(田虎)·방랍(方臘) 등을 토벌하는 전장에서 이용당함으로써, 결국 전장에서 죽거나 송강과 노준의 등과 같이 독주를 마시고 최후를 맞이하는 등 참담한 비극적 결말을 보여준다. 양산영웅의 비극적 결말은 양산박

34)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3. “万姓熙熙化育中, 三登之世乐无穷. …… 维推治乱兴亡数, 尽属阴阳造化功.”

35) 施耐庵·罗贯中 著, 위의 책, pp.971. “二则惟愿朝廷早降恩光, 赦免逆天大罪, 众当竭力捐躯, 尽忠报国, 死而后已.”

이라는 헤테로토피아 공간의 철저한 해체와 소멸을 의미한다. 완소칠(阮小七) 등이 속세를 버리고 양산박으로 돌아온 것처럼 양산박이라는 지리적 장소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공간적 실체는 시대적 기능을 다하고 사라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양산영웅의 운명은 ‘의’(양산박의 존재 가치)—‘충’(현실사회로의 재귀)—‘비극’(양산박의 소멸)으로 끝난다. 양산영웅은 현실세계로 재귀하였으나 현실사회의 질서 속에 용납되기 어려웠고, 현실은 결국 그들에게 어떠한 개혁의 자리도 내어주지 않았다. 양산영웅이 양산박을 터전으로 보상을 얻고 현실의 삶으로 재귀하고자 했던 이상은 모두 사라졌으며, 그들의 헤테로토피아는 기능을 잃고 ‘없는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헤테로토피아로서 양산박은 영웅인물들에게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었고 그들이 능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시대에 따른 헤테로토피아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이 글은 『수호전』에 묘사된 이상사회가 ‘유토피아’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양산영웅들이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던 공간 ‘양산박’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사회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적 공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헤테로토피아로서 ‘양산박’의 공간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수호전』의 본질적인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주제의식에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양산박은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서, 현실세계에 존재하지만 다른 현실공간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공간인 대항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의제기의 공간’으로 생성되었으며 ‘한시적 공간’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산박의 생성과 소멸은 헤테로토피아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헤테로토피아적 공간으로서의 양산박은 양산영웅이 ‘의’로 대표되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한 이상세계로서의 장소였으나, ‘충’으로 대표되는 현실세계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불안이 존재하는 경계의 장소가 되었다. 양산영웅은 초안이라는 교섭의 과정을 통해 현실세계로 재귀하면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고, 양산박이라는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은 소멸되었다.

『수호전』에 함축된 다양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서 추구하는 이상세계가 어떠한 ‘공간’적 의미를 함축

하고 있는지 또 이 ‘공간’이 현실세계에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작품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는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산박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은 『수호전』을 이해하는 데에 하나의 시각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 미셸 푸코 지음, 이상길 옮김,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7.
- 박기순, 「푸코의 헤테로토피아 개념 — 문학적 기원에 기초한 미학적 해석」, 『미학』, 제83권 1호, 2017, pp.111-112.
- 시내암 지, 연변대학 수호지 번역조 역, 『수호지』(1-4), 올재, 2015.
- 주경철 지음, 『유토피아, 농담과 역설의 이상 사회』, 사계절출판사, 2015, p.103.
- 진정엄·임기담 지, 이성규 역, 『중국의 유토피아 사상』, 지식산업사, 2011, pp.329-330.
- 토마스 모어 지음, 주경철 옮김, 『유토피아』, 을유문화사, 2017, pp.62-64.
- 魯迅 著, 『中国小说的历史的变迁』, 『鲁迅全集』(第9卷), 人民文学出版社, 1996, pp.324-325.
- 沈伯俊 编, 『水浒研究论文集』, 中华书局, 1994, p.15, p.251.
- 施耐庵·罗贯中 著, 『水浒传』, 人民文学出版社, 1992.
- 王 昕, 「论『水浒传』的“忠义”冲突及其近代意义」, 『中国人大大学学报』, 2019年第2期, p.172, pp.166-168.
- 竺 青 选编, 『名家解读水浒传』, 山东人民出版社, 1998, pp.150-151.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水浒传, 梁山泊, 空间, 异托邦, 乌托邦				
Key Words	영문	Shuihuzhuan, Liangshanpo, Space, Heterotopia, Utopia				
<div>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Liangshanpo in <i>Shuihuzhuan</i> :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Heterotopia</div> <div>Park, Myung-Jin</div> <p>This study started from the point that the ideal society described in <i>Shuihuzhuan</i>(水滸傳). differs from the concept of 'Utopia', The space where Liangshan heroes tried to realize their ideals, Liangshanpo(梁山泊) resembles 'Heterotopia'. it was a space of an ideal society that exists in reality. Paying attention to this point, I tried to approach the thematic consciousness of <i>Shuihuzhuan</i> by analyz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Liangshanpo as a heterotopia. Liangshanpo is a heterotopia space that exists in the real world, but exists as a counter space, which is absolutely different from other real spaces. The creation and extinction of Liangshanpo shows the principle of heterotopia. In order to grasp the various meanings implied in <i>Shuihuzhuan</i>, it seems necessary to approach through various perspectives. Analyzing the implications of the place through what kind of 'space' the ideal world pursued in the work constitutes and how this 'space' is constructed in the real world is a perspective to grasp the essence of the work. The perception of the 'space' called Liangshanpo has created a perspective in understanding <i>Shuihuzhuan</i>.</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박명진 / 朴明眞 / Park, Myung-Jin				
	소 속	嶺南大學校 文科大学 中國言語文化學科				
	Em@il	piao406@ynu.ac.kr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20	심 사 일	2020.12.02	게재확정일	2020.12.16